

MAGAZINE Vol. 40주년특별판

프시케 Story

Psych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이다.



학과 연혁 및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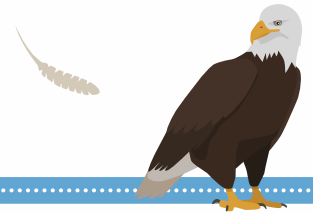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심리학과가 걸어온 길

우리 학과가 40년간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1978

- 1978** - 문리과대학 소속으로 창립
- 임능빈 교수 부임



- 2006** - 제2단계 BK21 사업단 선정
- 2008** - 서수균 교수 부임
- 심리학과 30주년
- 2009** - 김비아 교수 부임
- 2010**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사업) 소형 선정

- 2011** - 효원심리센터 설립
- 안신호, 이진환 교수 정년퇴임
- 2012** - 이동훈 교수 부임
- 2013**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사업) 중형 선정
- 학부역량강화를 위한 최적 교육과정 개발 공모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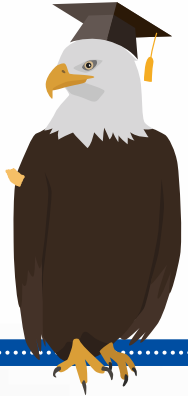


- 1979 - 안신호, 이진환 교수 부임
- 1980 - 신현정 교수 부임
- 1982 -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 변경
- 1982 - 윤은식 교수 부임

- 1985 - 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 1987 - 도경수, 홍창희, 정영숙 교수 부임
- 윤은식 교수 정년퇴임
- 1988 - 심리학과 10주년
- 1989 -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 1995 - 임능빈 교수 정년퇴임
- 1996 - 이재식 교수 부임
- 1998 - 심리학과 20주년
- 2000 - 이창환, 안현의 교수 부임

2018



- 2014 - 심은정 교수 부임
- 2014년 대학자체(학과) 평가 최우수 등급
- 2015 - 설선희 교수 부임
- 2016 - BK21 플러스사업 선정
- 2017 - 2017년 대학자체(학과) 평가 최우수 등급

- 2018 - 신현정, 홍창희 교수 정년퇴임
- 조승빈, 주성준 교수 부임
- **심리학과 40주년**



명예교수
축하글

심리학과와 자랑, 명예교수님의 이야기



신현정 | 명예교수

지난 세월 동안 심리학과를 이끌어 주신

신현정 명예교수님께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어느덧 마흔 해가 지나갑니다. 당시에는 오늘이 결코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오늘이 되고 보니 엇그제인 듯 느껴지면서 모든 것이 아련할 뿐입니다. 이고은 박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간은 결코 등속도가 아닌가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학문의 연륜으로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도 벗어나지 못한 시간이겠지요. 무릇 학문이란 것이 최소한의 지성을 갖춘 인류가 森羅萬象에 관한 자신의 무식함을 덜기 위한(보다 멋지게 표현하면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가야 할 길은 영원히 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의 열기와 패기만을 믿고 부산에 내려와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심리학도들을 마구잡이로 가르치겠다고 좌충우돌하던 시절도 있었고, 학생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심리학과를 수직상승 시키고자 애를 태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목표하였던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런 노력들이 학과와 학문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0주년이 단순한 시간 매김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40년이나 80년을 넘어서 먼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약대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앞으로도 심리학과를 이끌어 가주실

재직 교수님들을 소개하며,

교수님들의 40주년 축하 인사를 들어보아요.



심리학과가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40년, 저의 삶은 심리학과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1978년 심리학이란 미지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안고 부산대 심리학과에 입학한 이후, 시간강사와 조교, 그리고 교수로 거의 40년을 부산대 캠퍼스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엄청 늘어났고, 학문의 위상 역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리학을 사랑한 우리 동문들의 노력과 열정과 애정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신 은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 보면서,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심리학은 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매우 유익한 지식이었습니다.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 전체 과정을 시간이라는 차원으로 살피는 분야입니다. 교수 시절 초기에는 인간 행동의 기원이 궁금하여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나, 50대가 되어서는 성인 및 노인심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대한 연구는 저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지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모교에서 30여년 후배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것에 더하여 저의 젊음을 보낸 캠퍼스에서 언제나 젊은 후배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심리학과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모든 심리학과와 심리학을 위하여!

정영숙
교수

심리학과 of 현재, 재직교수님의 이야기

PSYCHE

심리학과의 현재, 재직교수님의 이야기



이재식
교수

올해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가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학과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학과에 대한 자긍심으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교수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학과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리학과 4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 학과가 발전한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한 더 밝은 미래의 모습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학과는 사회 과학의 핵심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왔고 인재양성과 학문발전, 그리고 사회공헌의 모든 측면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학과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진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잠재적 역량을 발견하고 미래 우리 사회의 중추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과 열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한 부단한 연구 노력을 통해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급변하는 학문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나아가 심리학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 학과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2008년 2월 말에 심리학과와 가족이 되고 그해 11월에 심리학과 30주년 행사를 했던 게 오래지 않게 여겨집니다. 근데 벌써 심리학과가 40주년을 맞는다니, 무심한 듯 자기 갈 길을 가는 세월에 야속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제 마음 한 켠의 머뭇거림이 제법 오래 느껴집니다. 학생들에게 좀 더 친절하자고 새해에 늘 다짐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렇지 못했던 부끄러운 민낯이 불쑥 떠올라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반백이 된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합니다. 지식의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더 큰 미덕이 되고, 혼자 기쁨보다 우리의 기쁨이 더 큰 가치를 갖고, 다르지만 가까워질 수 있는 비움과 소통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심리학과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서수균
교수



안녕하세요. 2009년 3월에 부임하여 인지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비아입니다. 심리학과의 40주년을 축하하는 글을 적고 있자니, 문득 제가 불혹이 넘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학부생으로 입학하여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와 함께 하였습니 다. 지나온 세월만큼의 시간 동안 앞으로 이 공간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제게 주어진 이 기회와 시간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학과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며, 매력적이고 흥미로우면서도 인간과 세상에 가치 있는 학문인 심리과학 전공 자라는 자부심이 가슴 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청춘을 바쳐 학과의 기틀을 다지고 학과를 성장시켜 주신 교수님 들과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학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심리학과 발전에 위해 더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사랑합니다!



김 비 아
교수



이 동 훈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9월에 임용되어 학생들에게 인지신경과 학, 언어심리학 등을 가르치며, 언어와 인지, 그리고 감정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는 한국 사회가 6~70년대 급진적인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개인의 삶의 문제는 사주, 팔자 등 소위 점집들에 의존하던 미신의 시대에,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지로 탄생하였습니다. 40년 전 금정산 자락 효원 앞마당에 뿌려진 그 소중한 씨앗은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그 학문적 정체성을 지키며 발전시켜온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기대할 만한 튼튼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의 꽃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학문적 해결책일 것이며, 열매는 그 해결책을 쥐고 사회 현장 곳곳에서 문제를 척척 풀어나가는 인재들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과학적 방법론에 기대어 인간의 심리와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찾아갈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인간은 가치를 추구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심리학을 하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화이팅!

심리학과와의 현재, 재직교수님의 이야기



심은정 교수

안녕하세요. 2014년에 부임한 임상심리전공 교수 심은정입니다. 40년의 시간 속에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와 위상을 드높여 주신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자랑스러운 동문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만년 유망주를 벗어나 이제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으로 인정받으며 사회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부산대학교 심리학과도 40주년을 맞이하여 더 큰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도 제가 자리한 곳에서 선임 교수님들과 동문께서 어렵게 쌓아주신 학과의 명성이 더 커나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고향으로 학과를 여기실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사회심리학 및 사회신경과학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설선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회신경과학 연구실에서는 행동실험이나 설문같은 전통적인 심리학 연구 방법과 수리 모형과 뇌영상 기법을 함께 적용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와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대학교에 재직할 기간은 아직 짧지만, 우리 학과의 일원이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우리 학과는 서로에게 따뜻하고 배움에 열정적이며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결같았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의 40년 역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헌신적인 교수님들과 우수한 학생들, 졸업생들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설선혜 교수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구성원 여러분, 저는 2018년 2학기에 조교수로 부임한 조승빈입니다. 우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이렇게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의 40주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미주리주립대학교에서 계량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약물중독의 발생에 대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밝히기 위해 계량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면접과 공개강의를 시작으로 제 삶은 변화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 본 한국의 대학에서 면접에 이어 다행히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한국을 떠나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기대와 낯설음이 공존하는 적응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맡는 강의에서 눈을 빛내며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저에게 기회를 준 교수님들께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4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함께 할 많은 날들을 기대합니다.



조 승 빈 교수



주 성 준 교수

안녕하세요. 2018년 2학기에 조교수로 부임한 주성준입니다. 먼저 40주년을 맞이한 심리학과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40년간 부산대학교 심리학과를 이끌어 오신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동문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시지각과 뇌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과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3차원 시지각에 대한 연구와 읽기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신물리학, 자기공명영상, 뇌전도, 뇌자도 등을 이용하여 여러 시각 과제의 신경 기제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산대학교에 부임하기 전부터 학교 안팎으로 좋은 소문이 나있는 심리학과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부임 후 두 달 남짓 여러 선배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을 통해 심리학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의 제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선배 교수님들과 심리학과 학부, 대학원생들과 함께 심리학과 50주년, 100주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동문회장 축사

우리학과 동/문/대/장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동문회장
정 병 무



늘 심리학과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총동문회장님** 감사합니다.
동문을 대표하여 전해주시는 축하 인사, 한 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심리학과 40주년 기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뜻깊은 40주년 축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가 40주년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애써준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입학했을 당시만 해도 심리학의 존재감은 그리 무겁지 않았고 덜 알려졌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물질문명의 발전과 아울러 심리학의 존재감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학과의 무게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직장생활에서는 심리학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나 교육같은 보직을 맡게 되었고, 이후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어 심리학과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 여러분... 급변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적으론 학교에서, 외적으론 졸업생들이 심리학도의 자부심을 갖고 훌륭한 일원으로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심리학과가 오늘과 같은 40주년을 맞이하고 이후 50주년 아니 100주년 행사를 멋있게 맞이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심리학과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0th 축하

응답하라 땡팔학번!

심리학과 40주년을 맞이하여,

78학번부터 88, 98, 08, 18학번 대표들이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78
학번

가야대학교 교수 겸 대외협력처장 이유 갑

심리학과 개설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운 사방이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시절에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개설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른다는 소식이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쯤 금정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효원 캠퍼스는 더없이 아름다운 늦가을의 풍경을 뽐내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1978년 3월 초 심리학과와 학생으로서 들었던 첫 강의가 아직도 옛그제의 일처럼 생생한데, 어느새 쓰아놓은 화살처럼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첨단인 사회과학인 심리학을 전공한다는 자부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그때가 그리웁습니다.

신설 심리학과와 튼튼한 초석을 쌓기 위하여 초대 학과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쏟으셨던 임병빈 교수님과 심리학계의 유망한 신진 학자이셨던 안신호 교수님, 이진환 교수님, 신현정 교수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동기이면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영숙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심리학의 사회적인 쓰임새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심리학이 학문 본래의 가치를 인정받고, 후배들의 진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시대의 좋은 흐름을 잘 활용하여 한국의 심리학과 각 대학의 심리학과가 더욱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뜻깊은 40주년 행사를 준비해주신 정병무 심리학과 동창회장님과 집행부의 여러 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 졸업 후에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동문들과 여러 은사님들, 현재 재직 중인 교수님들이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88
학번



태아트갤러리 주방아트보드 '디쿠' 대표 이 성 현

우선 심리학과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40년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도 부산대학교 근처를 지날 때면 그때 그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학교생활에 좋은 추억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렇게 축하 인사말을 쓰고 있자니 다시 한번 함께 수업했던 교수님들과 동문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혼자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합니다. 특히 88올림픽 때 입학했던 학번이라 88꿈나무로 불리며 선배님들의 사랑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때문인지 졸업한지 20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청춘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벌써 4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오랫동안 만나 뵈지 못한 동문들을 만나는 마음으로 설렘니다. 이젠 얼굴을 모르는 동문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행사장에서 웃으며 인사하게 되기를 기쁜 마음으로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니스프리 사업지원팀 송 호 준

98
학번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가을을 놓치겠다 싶어 친한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녀석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친구를 심리학과 입학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반평생을 같이한 학과 친구들이 여럿입니다. 순수함으로 좋은 뜻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고 앞으로도 제 삶에 지지자들로 남아줄 것 같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즐거움은 좋은 사람 만나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사회에선 좋은 사람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설프게 배웠지만, 심리학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의식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었는지 지금은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동기부여에 대해 고민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래에도 시가 넘보지 못하는 영역이라 좋은 커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공적을 묻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을 더 묻는 것 같아 부담되기도 합니다. 저와 동갑내기인 심리학과 40주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과하지도 섭섭하지도 않게 인사를 하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

심리학과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좋은 동반자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덕으로 많은 학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나 성장을 이루었고 학과의 사회적 위상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학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년이란 긴 시간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축적된 것 같습니다. 그 축적된 자원을 잘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변화 속에서 보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심리학과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08
학번부산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팀 위기개입상담관 김윤경

2008년은 제 대학 생활의 첫 시작이자 심리학자가 30주년인 해였습니다. 당시에는 30주년이라는 의미가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독 기억에 남는 건 앞으로 배우게 될 심리학에 대한 호기심, 사회생활을 하는 선배들의 모습,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정도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4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절반은 심리학과 학생이었으며 절반은 심리학과 졸업생이자 사회초년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에게 심리학은 여전히 광대하고 심오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깊이'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사람의 깊이를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지닌 마음의 깊이를 헤아려보며 그들을 가득히 바라보게 됩니다. 고작 서른인지라 아직 서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깊이의 시작을 심리학을 통해 할 수 있었던 점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를 나왔더라면 내 삶은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많습니다. 그것 역시 주어진 대로 썩 괜찮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대 앞 잔디밭에서 선후배, 동기들과 나는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채우게 합니다. 401호 강의실에서 훌륭한 교수님들 아래 지식과 지혜를 얻은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여전히 성장하게 합니다. 지금의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와의 추억들이 매 순간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동문으로서 우리 모두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40년의 시간만큼 뛰어난 교수님들과 든든한 선배님들이 있어 자랑스럽고, 앞으로 우리 학과를 더욱 빛낼 후배님들이 벌써부터 자랑스럽습니다. 10년 뒤, 그리고 100년 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때까지 부산대 심리학과는 보다 깊어갈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심리학과 40주년을. 더 많은 동문들과 앞으로의 심리학과를 보다 깊이 축하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의 심리학과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가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8
학번

18학번 총대 김준형



우선 40주년 대표 인사말을 쓰고 만나 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부산대학교 심리학과가 78년에 문을 연 이후 40년 동안 선배님들이 사회 각지에서 활약하신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심리학과가 명맥을 유지하고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된 데에는 선배님들의 노고 덕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요즘 대중들에게 제일 각인된 학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저희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고민 많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는 관록을 바탕으로 한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이쁨이 필요합니다. 학과 선배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고 배우겠습니다. 앞으로도 심리학과 발전의 중심이 돼주시리라 믿으며 심리학과 동기들을 비롯하여 선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졸업생
인터뷰

졸업생들의 추억 talk! talk!



신 언 희 (81학번)

부산대학교 효원상담원, 연구교수
yshin@pusan.ac.kr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심리학은 인간행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도모하는 학문이므로 심리상담을 하는 저에게는 사람들에게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해줍니다. 부산대학교 효원상담원에서 전임상담원, 그리고 지금은 연구교수로 재직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학문적 배경과 훈련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과 더불어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자 행복입니다.

Q2 기억에 남는 학과 생활 및 경험은 무엇인가요?

저는 81학번으로 심리학과가 개설된 초창기에 학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임능빈 교수님, 안신호 교수님, 이진환 교수님 그리고 신현정 교수님으로부터 열정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당시 사회가 불안정하여, 학내 시위로 인해 휴강도 잦았고 전투경찰들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학내 진입하여 최루탄을 투포하는 일도 잦았지요. 이럴 때면 여러 가지 울분으로 답답한 마음과 물리적 괴로움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시국적 상황과 심리학, 그리고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교수님들과 사회대 잔디밭이나 주막 등에서 치열하게 나누었던 일이 많이 떠오릅니다.

Q3 다시 학부 생활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회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교류학생이나 교환학생에 지원하여 폭넓은 경험을 쌓고 싶네요. 그리고 당시 저는 전통예술연구회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 이 외에도 음악 밴드 활동이나 취미활동 동아리에도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권 오 영 (85학번)

항공안전단, 인지심리연구원
kwonoy50@hanmail.net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항공안전단이라는 기관에서 인지심리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지심리를 전공해 그 전공과 직결되는 직책의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으니 심리학, 그리고 인지심리학이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라 도움 그 자체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 같다. 기초 심리학인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항공심리분야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심리학의 기본 지식과 원리가 다양한 응용 및 활용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이 굳건하고, 인적요인 관련 영역에서 심리학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Q2 삶 속에서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었고, 특히 사회 문제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흑세무민(惑世誣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의식과 비판적 시각으로 본질을 보려하는 데에 심리학적 방법론이 큰 역할을 하였다. 아주 때로는 심리학 전공자에게 속내를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진중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심리학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오해가 나를 편하게 해준다 ㅎㅎ.

Q3 심리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당장 눈앞의 걱정애 매달리기보다, 조금 더 멀리,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더불어 다양한 인문학 관련 서적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심리학 전문 공부 후, 관련 및 활용 분야에서 연구나 업무를 할 때 인문학적 소양이 아이디어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되는 심리학은 기본에 충실할수록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기초 심리학 분야를 튼튼히 해야 한다.

2018년, 다양한 직업을 가진 18명의 졸업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졸업생들의 추억,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현재 직업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졸업생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권 변 준 (90학번) k1엠하우스, 본부장
2bjkwon@gmail.com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90년대 말, 제가 입사했던 회사를 제외하면 전산이나 공대 계열 전공이 아닌 졸업생을 선발하는 IT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심리학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력을 쌓은 후,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공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회사가 이공계 중심의 IT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심리학 전공자가 이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Q2 다시 학부 생활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공부하고 싶습니다. 심리학은 물론이고 철학이나 그 밖의 교양 인문과목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모두 다 해 볼 것 같습니다. 배낭 여행, 스쿨밴드 활동, 각종 공모전 도전, 스타트업 창업, 교환학생 혹은 유학 등.

Q3 위의 질문 꾸러미에는 없지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선후배님들, 각자 계신 곳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하 만 윤 (90학번) (주)뉴빛, 부장
roadinmt@gmail.com

Q1 기억에 남는 학과 생활 및 경험은 무엇인가요?

사실 학과 생활은 열심히 하지 못했다. 아니 안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입학했던 90년 1학기부터 부대신문사 사진기자로 3년간 활동하며, 공부보다는 학과와 사회의 모순과 극복에 더 관심을 가지며 밖으로 돌아다녔다. 수업은 소홀히 하게 되었지만, 학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지 않은 덕에 아직도 많은 동문과 연락하고 만나며 지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으니 만족한다. 그때 맺은 인연이 가연(佳緣)이길 항상 바라며.



Q2 기억에 남는 교수님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수업을 열심히 듣지 못해 기억에 남는 교수님보다는 아마 나를 수업 들어 오지 않는 골칫거리 학생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졸업을 걱정해주시던 신현정 교수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걱정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수업에 빠지고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당연히 점수는 좋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팩트.

Q3 다시 부산대에 온다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는?

최근 부산대학교를 찾으면 답답한 느낌이 든다. 넓지 않은 공간에 가득 들어선 건물들이 이전에 느낄 수 있었던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은 아니기에. 나는 구정문인 무지개문을 지나 웅비의 탐으로부터 시작되는 학교의 왼쪽 길이 좋다. 인문관과 재료관 사이 길을 따라 농협을 끼고 돌아 박물관에 다다르면 일명 콰이강의 다리를 만날 수 있다. 그 길을 따라 계절을 느끼는 것이 좋았고, 이번 40주년에도 시간이 된다면 콰이강 다리 앞 바위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을 느껴보고 싶다.

민 은 정 (93학번)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임상심리전문가
ejmin74@naver.com



Q1 삶 속에서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임상을 전공하면서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마냥 철없어 보이던 동생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과제를 핑계로 동생들에게 검사와 해석을 해주는 과정에서, 동생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임상 전공자나 수련생들에게 자신과 가족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꼭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Q2 기억에 남는 교수님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창희 교수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저의 지도교수님이 시기도 하십니다만... 대학원 입학 전 임상실험실에서 교수님의 연구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일한 선배들은 거의 녹초가 되었던 것 같고, 그날은 다 같이 일찍 퇴근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실험실에 와 보니, 차갑게 식은 만두가 실험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홍창희 교수님께서 저희가 밤까지 고생한다고 사오셨다가 아무도 없어서 두고 가신 거지요. 만두는 차갑게 식었지만,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핑돌고 말없이 퇴근해버린 것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찡합니다.

Q3 심리학과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나의 40살은 어떠셨나요?

저에게 40살이 올지 몰랐지요. 우리나라 나이, 만 나이까지 따지면서 마흔을 거부했지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무거워지면서 마흔이 와버렸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량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역할이 많아지고 책임도 커졌고, 가정에서도 아이가 입학하며 엄마로서 해야 할 일도 늘어났고요.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가장 바쁘고 에너지 넘치게 맞이했던 시절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마흔을 지나며 자신과 주변에 조금 더 여유로워진 것 같고, 일에 있어서도 제가 바라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다고 자신을 격려해봅니다.

Q1 기억에 남는 교수님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존경하는 신현정 교수님! 제 인생에서 만난 교수님 중 가장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던 은사님. 5월 축제 기간 학교가 참 시끄러웠죠. 전공 수업을 하던 중 교수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시더니 상대 쪽 창문을 열고 “야~이 x x x 들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신입생인 저는 놀라움 반 감동 반이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너무나 애써주시는 모습에 지금도 교수님이 그립습니다.

Q2 다시 부산대에 온다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는?

“소확행” 사회대 잔디밭! 입학 후 선배들이 사회대 잔디밭은 예전에 원형 연못이었다고 늘 얘기했어요. 잔디밭의 이런저런 추억을 들으며 쉬는 시간마다 나와 잔디밭 그늘 벤치에 앉거나 누워있곤 했죠. 그 당시에는 그 여유가 ‘행복’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 추억이 정말 ‘소확행’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느끼네요. 선배배 동기들과 추억이 있는 사회대 잔디밭은 지금 생각해도 아련하고 행복합니다.

Q3 심리학과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나의 40살은 어떠셨나요?

동갑내기 심리학과 97학번인 제가 태어난 1978년이 심리학과가 창립된 해와 동일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 부산대학교 심리학과는 대지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늘 고향과도 같은 우리 심리학과와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김 정 아 (97학번)

(주)제이컴즈, 대표이사
kimsvoice@daum.net



백 원 기 (99학번)

한화생명보험, 과장
wongi.baek@gmail.com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취업할 때 심리학이 아닌 '부산대학교 심리학과'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름의 학생운동을 통해 사회에 대해 처음 생각해보았고, 많은 선배와 함께 지내며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했으며, 학과 학생회장의 임무를 맡아 리더십과 조직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대 밴드 해방도 깨비를 통해 취미생활도 얻었고, 공학심리 인턴십을 통해 심리학에 대해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꼭 찬 학과생활을 하고 나니 취업이나 면접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취업 확정 후, 교수님들을 찾아 뵈었을 때, 한 교수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라고 하시는데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항상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대표라는 생각으로 회사에서 일하게 되니 열심히, 잘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에게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가 취업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회사생활도 챙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Q2 대학생 때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대학생활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아쉬움이 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둘째는 책을 열심히 읽지 않은 것입니다. 대학 시절 술과 여행,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지만, 대학생으로서 가장 기본인 공부를 소홀함에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리학에 대한 깊이를 가질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현재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를 수행할수록 심리학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기획에는 고객의 심리, 인사조직 기획에는 직원의 심리, 시스템 개발 기획에는 User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재학생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후회하지 않도록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 영 (02학번)

울산공업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8895623@hanmail.net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심리학과에 진학 후, 자격증을 하나 가진다 생각하고 교직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졸업 시기에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칠 수 있는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되었고, 첫째 운이 좋게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생긴 것이 큰 운이라 생각하며,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생활 동안 배운 심리학, 교직 복수전공,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준비해 놓은 것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Q2 다시 부산대에 온다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는?

사회대 잔디밭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잔디밭을 보며 멍 때리기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공강 시간이면 벤치에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사회대 수업을 들을 때면 늘 그곳을 지나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만나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Q3 대학생 때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방학 동안 배낭여행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부족한 돈을 아껴가면서 배낭여행을 가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20대 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 다녀왔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지 연 (04학번)

(주)삼성전자 Life Coaching 센터
Senior Counselor
sparklinglee@naver.com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업 내 임직원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회복을 돕는 상담심리전문가입니다. 상담사로 일하기 위해선 사람에게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이해, 따뜻한 공감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삶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 공감하기 위해선 다양한 영역의 심리학 이론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더불어, 한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가치에 접촉해 성찰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심리학의 살아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Q2 삶 속에서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돌이켜보면 저의 대학 생활은 불안전하고, 서툰, 방황하는 시간으로 가득했어요. 나의 정체성,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내게 중요한 것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심리학을 배우면서 타인과, 내 삶에 대한 조망이 생겨났어요. 내 속의 분노나 슬픔, 외로움, 좌절 등의 감정들을 다시 꺼내어 보는 작업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래도 그러한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시간이었고, 누군가를 깊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어요.

Q3 다시 부산대에 온다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는?

04학번 '한결' 친구들은 시계탑과 너털가 생각난대요. 지금은 변했지만, 예전엔 낮은 언덕길 위의 시계탑을 지나 너털한터로 이어지는 낭만적인 공간이었어요. 화창한 5월, 너털을 지나 교정을 걸으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죠. 사회대 앞 잔디밭에서 자장면도, 중도 옥상에서 뽕아먹는 자판기 커피도 생각나네요. 무엇보다 심리학과 동기, 선후배님들, 조교쌤, 교수님들 만나 도란도란 사는 얘기 주고 받고 싶어요.

이 현 규 (06학번)

엔씨소프트,
모바일데이터팀 팀원
magna916@ncsoft.com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음을 강조하세요. 저는 데이터의 추출 및 분석과 DB 관리 및 지표 정의 등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직무 수행 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정성적인 기준과 논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며 얻은 배경지식을 통해, 사용자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심리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서점에 가면 심리학 코너가 따로 있을 만큼 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심리학의 위치는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은, 그렇지만 굳이 실무에 적용하지는 않는 애매한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다양한 심리학 영역 중에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이 영역을 실제로 어떤 직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미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Q3 다시 학부 생활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심리학과에서 20대를 보내며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배님들이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취업에 필요하지 않아도 지금 해보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에 많은 추억을 만드세요. 심리학과 후배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김 태 준 (07학번) 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부, 대리
dkdldiq1@naver.com

Q1 심리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공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살면서 정말 많이 받아 왔습니다. 심리학이라는 답변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편협한 시선들에 위축되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심리학은 연구 학문이며 사회 여러 분야에 공헌하고 있는 유망전공입니다. 누구보다 멋진 학문을 공부하는 만큼 자부심을 잃지 말라는 말을 후배님들께 해주고 싶습니다.

Q2 다시 부산대에 온다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는?

중앙도서관에 가보고 싶습니다. 학부 시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구요. 다른 생각 없이 여러 꿈을 꾸면서 노력했던 추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Q3 다시 학부 생활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해외 교환학생 못 간 것이 후회됩니다. 저는 취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토플을 준비하다가 이를 포기했었죠. 교환학생제도는 저비용으로 해외에서 수학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의 기회이니, 후배님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값진 경험이 될 거예요.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부산연제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송리라 경장입니다. 2011년도 피해자심리전문요원(현재는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명칭 통일) 선발 기준은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이었고, 2016년도에는 심리학 석사 학위 이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직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테니...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경찰에서 심리학 전공자를 꾸준히 채용할 예정이니 선후배, 동기님들 많이 지원해주세요!(e.g.,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범죄분석, 학교전담경찰관 등)

Q2 기억에 남는 학과 생활 및 경험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안신호 교수님의 예술심리학인데 재미있는 내용이라 다시 수업을 듣고 싶네요. 화가의 화풍을 익혀서 실기시험 쳤던 게 인상적이었고, 그 덕분에 많은 화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안신호 교수님 과목의 시험을 치르고 나면 오른손이 남아나질 않았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Q3 삶 속에서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살인, 방화, 강도, 중상해 등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치료비, 생계비, 주거 이 전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등), 심리적(심리상담, 범죄피해 평가, 템플스테이 등), 법률적(법정 동행, 법률 모니터링 등) 및 기타 지원(강력범죄 현장 정리, 취업 지원 등)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리적 지원 업무를 할 때 심리학, 상담을 전공한 것이 일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 리 라 (08학번)

부산 연제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장
spero-spera@hanmail.net





유 한 별 (09학번)

청년가치협동조합, 사무국장
hbstar98@gmail.com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마을청년활동가라는 직업은 제법 낯선 직업입니다.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으로 소통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더 큰 의미의 집단/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모순조차 개인의 노력여부로 떠넘겨지는 세상에서 심리학 전공은 '사람'에 관심을 가지는 일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와 옆 사람, 이 집단과 옆 집단을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존중하고 지지하는 체계를 가지는 것. 이 모두가 심리학 덕분에 현장에서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2 기억에 남는 학과 생활 및 경험은 무엇인가요?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이수했던 수업에서 선배님들이 계신 기관들에 실습을 다녀온 것이 기억납니다. 현장에서 선배님들이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며, 눈앞의 내담자와 환자,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들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나서본 적도 없어서 주위의 힘든 친구나 부당한 사례를 겪는 지인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던 때에, 현장 실습을 통해 사람에게 도움을 줄 방법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로를 결정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Q3 심리학과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나의 40살은 어떠셨나요?

막 대학교에 입학해 상남피시방 다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40살이 되려면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ㅎㅎ 40살의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면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주인이 주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도전적이고 발칙한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더이상 청년공동체는 아니겠지만, 장년공동체를 신나게 꾸리고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이 진 우 (10학번)

티웨이항공, 객실승무원
jinwooggu@naver.com

Q1 삶 속에서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심리학을 배운 우리에게 가장 큰 강점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이해력보다 중요한 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 공감 능력이기도요. 지금 기억나는 심리학적 지식은 별로 없더라도, 심리학 영역 전반에 걸친 토대인 "인간을 이해해보려는 자세", 그 위에서 보낸 수 년은 앞으로 보낼 수십 년을 키울 자양분이라 믿습니다.

Q2 심리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배운 이론을 실생활에서 계속 사용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대화 능력, 말싸움 능력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적재적소에서 심리학 이론들과 학자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며 의견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심리학자라고는 이제 스키너, 프로이트, 신현정, 이동훈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무척이나 아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심리학이라는 무기를 제련하십시오.

Q3 다시 학부 생활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드림클래스, 오지탐험대, 교환학생 같은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대학생에게 용돈과 경험을 주기 위해 안달인 부산대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3학년 이후에나 이런 정보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빠른 수록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 학점으로, 내 경력으로 될까. 모두가 하는 고민은 집어 던지고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정혜인 (10학번)

에어비앤비, Experiences Coordinator
grace.haein.jung@gmail.com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에어비앤비는 입사하기 전 5~10번의 개인 인터뷰를 보는데, 그 중 나의 성향이 에어비앤비의 중심 가치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인터뷰를 합니다. 이때 심리학을 공부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생각하지 않았다면 인터뷰가 어려웠을 거예요. 심리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찾아갈 기회가 월등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들을 통해 제 나름대로 찾아간 대답이 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Q2 심리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심리학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단단한 베이스캠프를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베이스캠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영어 및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할 것'. 개인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보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노출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빨리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을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지치지 않고 하려면 정말 기초 체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강한 분출구도 필요합니다.

Q3 위의 질문 꾸러미에는 없지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략적으로 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를 살아가도 그게 본인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한 것 같아요. 해야 할 것으로 가득 차거나, 남들보다 모자란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하루보다, 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꽤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 하루하루로 삶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서유리 (11학번)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yool@busan.com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언론은 인간사를 다룹니다. 어떤 이의 억울함, 분함, 기쁨, 자부심이 모여 기사가 됩니다. 기사의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이지요.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취재원을 만날 때 심리학을 전공한 건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대화 상대도 제가 당신의 심리를 잘 헤아릴 거라고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 기대감 덕에 많은 이야기를 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Q2 다시 부산대에 온다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는?

제 대학 생활이 오롯이 녹아있는 하숙집이 가장 그리워요.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쭉, 미래로 교회 옆 하숙집에서 살았습니다. 사장님도, 이모님도 좋으시고 학생들끼리도 사이가 좋아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졸업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저의 거처가 되어준 소중한 곳입니다. 아직 운영 중이니 하숙집 구하는 후배 분들은 관심 가져주세요!

Q3 대학생 때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대학 시절 학내 방송국 활동 하라, 멘토링 하라, 언론사 인턴 생활 하라, 취업 준비하라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학부 시절 외국에서 공부를 못 해본 건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살면서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가 아니면 흔치 않을뿐더러, 큰 고민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이 아니더라도 워킹홀리데이나 어학 연수, 장기간 배낭 여행도 좋고요. 대학 시절 조금 더 도전적인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재은 (13학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계약직 사원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트라 입사 전, 리서치 회사에 잠시 다녔는데 그곳에서 사용했던 조사 방법 중 5~8명 그룹과 제품에 관해 토론하는 조사(Focus Group Discussion, FGD)가 있었어요. 집단 상담과 비슷하게 느껴졌던 FGD 리서치 과정에서, 연구방법론 강의를 통해 증진된 분석적 역량이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입사 시 저의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Q2 대학생 때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학교 때는 학점관리와 대외활동도 나서서 했다기보다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했었거든요. 막상 취업 준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는 수동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제가 다시 대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시간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Q3 위의 질문 꾸러미에는 없지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대학생 때 사회경험을 꼭 해볼 것. 저는 공모전이나 대외활동도 좋지만,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직접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경험해 봤는데, 기업마다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기업 성향이 자기랑 맞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들어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관심 있는 기업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에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현장 실습이나 체험형 인턴 기회가 많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아람 (10학번) 2018 행정고시 합격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첫 행정고시 합격생,
이아람 졸업생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Q1 현재 직업을 가질 때,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 심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진로가 심리학 전공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점, 그런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함으로써 좋은 정책을 만들어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심리학에서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2 다시 부산대에 온다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는?

제가 다시 부산대에 돌아간다면 중앙도서관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얼마 전 졸업 후 처음으로 학교를 방문했는데 복문에서 본 중도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내부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학부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중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면 중도를 자주 이용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열의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Q3 대학생 때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대외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유익한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학부 시절에는 학교를 수업 듣는 공간으로만 생각해서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여러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도 후회가 됩니다. 대학생 시절에 보다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현재 카카오토리와 네이버북스에서 '최악의 연애'를 연재 중인
심리학과 08학번 졸업생 김예지 작가를 소개합니다.
☒ E-mail : ideal100820@naver.com

고마워, 심리학!

대학교 1학년,
처음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을 때,

패 충격을
받았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느꼈던 각종
편견들이.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제대로 클 수 없다
정신병은 치료 불가능
남보다 비 이성적이다 정신과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끝장
정신병자는 모두 폭력적이어야 상담은 이상한 애들이나 받는 것

사실은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된 날.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제대로 클 수 없다~~
~~정신병은 치료 불가능~~
~~남보다 비 이성적이다 정신과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끝장~~
~~정신병자는 모두 폭력적이어야 상담은 이상한 애들이나 받는 것~~

대학교가 아니면
공부할 수
없었던
분야였고,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부산대 심리학과
4년째
축하드립니다!

재학생, 생생정보통!

알고 계셨나요? 학과 행사가 시작된 2월부터 오늘, 11월 3일, 바로 40번째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심리학과에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난 40주간의 재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2월 초 신입생 OT

신입생들을 위한 행사인 신입생 OT를 통해 대학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려주어요. 이는 본격적으로 대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 같은 행사랍니다.



2월 말 가족 MT

신입생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MT! 아직 서로 어색할 신입생들을 위해 천하제일요리대회와 일대일 달빛 데이트 등 다양한 게임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말 신복 MT

신복 MT는 신입생·복학생 MT의 준말로,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복학생을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새롭고 반가운 얼굴을 환영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가장 관심을 가지는 행사입니다.



5월, 12월 안심박심

‘안에서 보는 심리학, 밖에서 보는 심리학!’ 학부 선배가 대학 생활의 꿀정보를 전해주는 ‘학교편’과 졸업생 선배께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취업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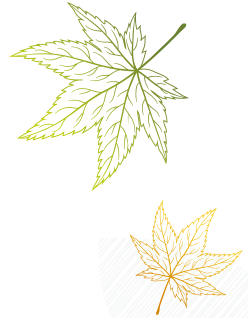
7월 농활

농촌 어르신들의 일손도 돕고 직접 밥도 해 먹으면서 일주일간 농촌을 체험해볼 수 있는 활동! 2018년, 경상남도 함양에서의 농활에서는 성취감과 더불어 학우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가을소풍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동래읍성의 경치를 배경으로 심리학과 학생과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 산책과 게임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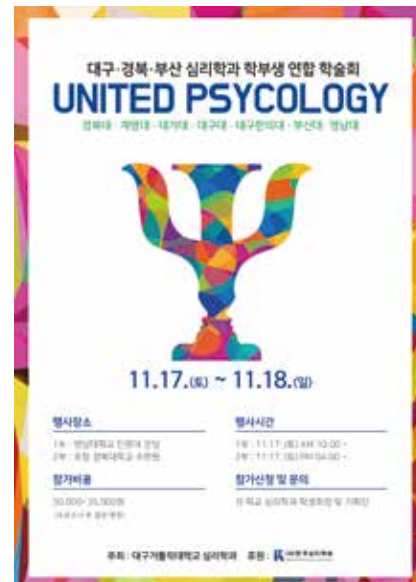


11월 심리학과 40주년

우리 학과가 벌써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심리학과 학우들과 선배님들의 축하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기념 영상을 비롯하여 밴드 동아리 해방도깨비와 현악 4중주 팀의 축하 공연, 그리고 저녁 만찬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모두 모여 따뜻하고 행복할 시간을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11월 UP

2016년부터 매년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와의 학술교류전("부심경심")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대구·경북 지역의 6개교가 참가하는 UP(United Psychology)과 부심경심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 부산대학교를 포함한 7개교 8개 학과가 참여하는 큰 행사인 만큼, 이곳에서의 배움을 통해 학부생들의 학업 및 연구 역량이 증진되리라 기대합니다.



심리학 삼행시를 부탁해!

40주년을 맞이해 재학생들의 애교심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삼행시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심리학과 학생들의 재치 넘치는 심리학 삼행시를 소개합니다.



1등 정연목

심 심리학과에 입학한 것이 옛그제 같은데
리 리모컨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듯
학 학창시절은 그렇게 마냥 흘러가버렸네

3등 이지수

심 심은정 교수님의 재치와
리 이동훈 교수님의 넉살에
학 학교 다닐 맛이 난답니다



2등 김태은

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리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학 학문이 아닐까

3등 정상범

심 심도 깊은 통찰과 연구들로
리 리스펙 받는
학 학문, 심리학 최고!



2등 박성진

심 심리학 삼행시 지으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준답니다.
리 이차 강화물입니다.
학 학습과 행동(김문수, 박소현 역). Paul Chance. (2011). 서울: 시그마프레스.

3등 임찬우

심 심각한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의 노래가 흐른다
리 리듬에 맞춰 사람들의 표정에 그늘이 진다
학 학점통지서... 2018년 올 겨울 그 눈이 온다.

그 외에도 많은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해주셨어요~

김미진

심 심장이 두근두근
리 리듬 타면서 뛰고 있어
학 학점 나오는 날이거든!

오한별

심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나?
리 이리로 오게. 얼른 오시게.
학 학다리 얹히듯 얹혀보세.

김소정

심 심사숙고해서
리 리본봉대를 묶어줬다.. 제비한테..
학 학..이었네??

심

심 심리학을 배웠다.
리 이렇게 맛있는 학문이었다니...
학 학학학기ㅎㅎ학기ㅎㅎ학

이현우

심 심리학과 다닌다고?
리 니(리) 그럼 내 심리를
함 분석해 봐라!
학 학교에서 뭐 배웠길래
그거 하나 못하노!

박상진

심 심술긋게 행동한다고요?
리 이런 경우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학 학습심리학이 해결해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비둘기 마스터 스키너가
함께합니다.)

최지연

심 심심한데
리 이리와
학 학마 오늘마 그냥마 학마^^

심

심 심리학으로 삼행시공모전을
한다급쇼?
리 이건 뭐 더 불필요가 없겠네요
학 학실히 상품은 제 것입니다.

프시케스토리 기자단 편집후기 및 후원 감사인사



김비아 교수

남들이 날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한 우리 모두는 중요한 사람들 ^^

최원범 조교

프시케스토리 40주년 특별판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상희 상담심리실험실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준호 사회심리실험실

40주년 프시케스토리 특별판 제작에 참여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최지연 발달심리실험실

심리학과가 40주년을 맞이해서 놀라웠고, 특별판 제작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혜주 임상심리실험실

선배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들으며 많은 도전과 용기 얻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40주년 기념행사를 후원해주신 **Σ사마프레스** 및 **학지사** 출판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전기금을 보내주신 동문들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40

ANNIVERSARY
1978-2018

발행일 2018. 11. 3.
발행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회관 416호)
Tel 051. 510. 1561
Fax 051. 581. 1457
홈페이지 psy.pusan.ac.kr
기획·편집 부산대학교 심리학과